

인테넷 자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중 [대심문관] 압축

요즘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날 몇 일을 살고 있다. 아마도 어떤 외교관의 신앙 고백서를 읽고 난 다음부터인 것 같다. 뿌리깊은 인간의 문제이지만 "우리에게 신은 무엇이고 어떤 존재란 말인가?" 최근 읽은 몇권의 종교서적 때문에 불현듯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 나고.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라는 소설 속에 액자처럼 끼어있는 <대심문관>이라는 서사시를 기억해냈다. 그리고 다시한번 그 대목을 읽고 만감이 교체하는 걸 느낀다. 100여년전 러시아의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소설에서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발칙한 상상(?)으로 동시대를 사는 평범한 인간뿐 아니라 그 이후 100여년 동안 인간의 양심을 서늘케 한다. 까라마조프가의 똑똑하고 쿨한 둘째 이반이 순진한 알료사에게 들려주는 자작 서사시의 내용이다.

<대심문관>의 배경은 스페인의 세빌라. 종교재판으로 하루에도 수백명의 이교도가 장작더미 위에서 불태워져 가던 16세기 마녀사냥의 시기. 어느날 예수는 지상에 강림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띄이지 않게 슬그머니 나타났지만, 이상스럽게도 모두가 그가 주님인 걸 알아챘다.(326P) 군중들 속에서 장님 노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관 속에 누워있는 어느 시민의 일곱살 외동딸을 살려낸다. 광장을 지나던 대심문관인 추기경이 이 광경을 목격한다.

아흔살이 넘은 나이에든 꽃꽂이 권위를 잃지않고 있는 그는 시대의 상징이자 최고의 권력이다. 아무도 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므로, 기적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도록 하는 명령에 누구도 거역하지 못한다. 맏소사 한 시대의 추기경이 강림한 예수를 감옥에 가둔것이다.

"당신이 정말 예수요?...그런데 무엇 때문에 당신은 우리를 방해하러 왔소?"

만일 이 대서사시가 연극으로 무대에 올려진다면 나는 예수 역할을 충분히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사가 한마디도 없기 때문이다. 침묵...오로지 침묵...마지막에 마른 입맞춤 한번.

대심문관은 마태오복음 4장을 상기시키며 예수에게 역사적 과오를 각인시키려 노력한다. 무섭도록 지혜로운 악마의 유혹 세 가지.

(성경속에 이 악마의 유혹장면이 사라졌다고 가정하고, 19세기 신학자, 법학자, 심리학자, 정치가, 의사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 악마가 예수를 유혹하는 질문을 작성하라고 하면 틀림없이 이 세가지가 다시 작성되었으리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장담한다.)

그것은 자유와 빵의 문제였고, 예수는 왜 쓸데없이 빵을 거부하며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었냐고 대심문관은 힐난한다.

맏소사...

"그때 당신은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대답했지? 그것이 최고의 현명함이라고 지금도 생

각하겠지만 현실은... 수천년이 흐른 지금에도 배고픈 인민들은 "먼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러고 나서 착한 행위를 요구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영원토록 전전긍긍하고 있단 말이오?" 당신이 그때, 악마의 첫번째 유혹에서 돌맹이를 빵으로 바꾸는 기적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면... <지상의 빵>을 받아들였다면...

전 인류의 영원하고도 공통된 고민거리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누구를 숭배할 것인가?"의 문제.

그 숭배의 문제로 인류는 칼을 빼어들고 서로 자신들 신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끝도 없는 살육과 학살과 고통의 싸움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심문관은 자유와 지상의 빵과는 어떠한 인간에게나 양립할 수 없다는 진리를 설파하면서... 그리고 처절하게 고백한다. "그렇고! 우리는 당신과 손잡는 대신 과감하게 그 악마와 손을 잡고 있소. 이것이 우리들의 비밀인 셈이지"

우리의 시스템은 세가지 힘으로 유지되지..그것은 기적과 신비와 권위주의....

그리고...

1500년전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다하고 떠난 후 지상에서 당신의 모든 역할은 이미 추기경, 교황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상기 시키면서 그러니 더이상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지말고 떠나라고 예수를 쫓아낸다.

"자, 어서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영영 오지 말란 말이오"하고..

그리하여 도시의 어두운 광장으로 풀려나온 예수는 조용히 그곳을 떠나 버렸다.

서사시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여운은 길게 남아 있다.

소설 속에서 순진한 동생 알료샤는 형 이반에게 절규한다.

"형님 역시 그 노인, 대심문관, 추기경과 한 패지요, 형님도??"

젊은 시절 나도 수많은 형님들에게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다. 아직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는 교회앞에 서면 왠지 떠나가는 예수의 뒷모습이 보이곤 했다. 암울했던 80년대 중반, 한동안 성당에서 야학교사로 활동했던 그 시절.. 성당 분위기가 안좋아 진다며 그 소박한 배움터가 쫓겨나던 날 밤이 생각났다.

[출처] 도스토예프스키 <대심문관>이 생각나서...|작성자 마녀아빠

“은퇴하면...” 하고 버르던 일들이 몇 있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전작을 다시 정독하는

일도 그 하나. 새로 나온 우리 말 번역본들이 있어 다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을 읽는 일은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점들을 깨우치게 되리라는 예상은 처음부터 계산하고 시작한 일이지만, 그 도와 범위가 정도를 넘는다는 느낌이 그렇지 않아도 눈이 어두운 늙은이로 하여금 읽는 속도를 더 더디게 하고 있다.

약 20년에 걸쳐, 한 대학에서 수강생들에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고 요약 쓰기를 강요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작품을 읽으면서, 그 짓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였나를 깨달으며 얼굴을 붉힌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처음 3일간, 그리고 2개월이 지난 3일간, 해서, 이 길고도 긴 장편이 불과 6일간에 일어난 사건이란 사실을 새삼 알게 되면서, 이 작품은 요약이 불가능한 소설일 뿐만 아니라, 세부를 기억하기가 어려운 색다른 소설이란 것을 이제사 알게 되는 것이다. 다시 독서보고를 요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심문관’만으로 범위를 줄여줄 터인데… 하고 후회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문득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지도자들이 ‘대심문관’을 읽거나,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게 되었다. ‘대심문관’은 2백자 원고지로 150장 정도의 분량이다.

16세기 말의 어느 날, 예수가 스페인의 한 도시 세빌리아에 다시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은, 추기경이자 이단을 가려내는 일을 하는 대심문관이 백 사람의 이단자들을 불로 살라 죽인 바로 그 이튿 날이었다.

그 분은 ‘조용히 눈에 띄이지 않게’ 사람들 틈에 섞여 들지만, ‘보라, 모든 사람들이 그분임을 알아보고 그분을 따르기에’ 아무도 막을 수 없을 지경이다. 그분은 묵묵히 걸어간다. 그분의 입술은 한없이 자비로운 웃음을 머금었고, 마음속에서 불타는 사랑은 섬광이 되어 사람들 위에 머물러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놓는다. 축복하는 그분의 손이 그들 위에 펼쳐질 때마다, 혹은 그들의 손이 그분의 옷에 닿기만 해도 치유의 힘은 흘러나왔다.’

그 분은 한 늙은 장님을 치유했고, 죽어서 장사 치르려던 한 아이를 살렸다. ‘감동한 백성들은 소리치고 흐느꼈다.’ 바로 그 순간, 추기경이자 대심문관이 호위병을 거느리고 그 곳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그는 예수를 체포토록 명령했고, 이윽고 예수는 한 어두운 지하 감방에 갇힌 죄수가 된다.

밤이 되어, 백발의 대심문관이 감옥으로 예수를 찾아온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당신은 시군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훼방하기 위해서요?”

“당신이 진짜 예수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소. 내일 우리는 당신을 재판에 걸어 이단자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인물로 유죄판결을 내릴 것이요.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그러면, 오늘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추던 백성들은 나의 신호를 따라, 장작더미와 석탄에 바람을 불어 불꽃을 일으킬 것이요.”

“당신께서 노여워하시며 거절하신 것들, 다시 말해 유혹하는 자가 당신 앞에서 지상의 부귀를 보이면서 당신에게 내민 선물들(마 4:8 이하)을, 우리는 그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했다. “이제 당신은 먼 옛날에 말씀하신 것들 말고는 아무런 말을 더 보탬 권리조차 가지고 있지 않소.”

‘대심문관은 죄수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기다렸다. 죄수의 침묵이 그를 압박했기 때문이

다. 그는 한마디의 말씀, 권위가 있어 두려움을 느끼게 될 말씀을 기다렸다. 그러나 죄수는 가만히 일어나 백발노인에게 다가가서 키스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예수는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감은 우리를 압도한다.

니코라이 베르자예프는 대심문관을 소련의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상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렇다고 오늘의 교회지도자들이 손을 씻고 안도해도 종단 말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관’ 에서 “대심문관을 무신론자요 악마라고 단순하게 치부해버린다면 이 이야기는 무의미해진다” 라고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정병권 교수님께서 내주신 속제였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 '대심문관'을 읽고 독후감을 써 내라. 3일 동안 내리 읽고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소름끼치는 글이었다. 김규항의 글과 당시 내가 읽고 있던 출애굽기를 총동원해 쓴-- 그때의 느낌.)

출애굽기를 읽는다. 신의 명을 따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압제하고 탄압하던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기록이다. 목적지를 향해 가던 도중 신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따로 불러 ‘자신의 백성들’ 을 위한 계명들을 내려준다.

모세가 오랫동안 시내산에서 신과 대화하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진다. 모세가 죽었을까봐, 자기들을 이끌어내 준 선지자가 죽었을까봐 두려워하고 신이 자신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떠다.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확실한 무엇을 원한다.

모세의 형 아론에게 다그친다. 우리의 신을 ‘보여달라고’ ! 아론은 금붙이들을 가져오라 한다. 모인 금붙이를 불로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이다.” 사실 그것은 우상숭배로, <대심문관>의 표현을 빌리면 ‘악마’ 인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은 확실히 보이는 악마앞에서 안심한다.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고 행복에 겨워 춤춘다.

<대심문관>을 다 읽고 난 후 바로 출애굽기의 이 내용이 떠올랐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작중인물인 이반이 동생으로 보이는 알료사에게 들려주는 이 서사시는 나에게 인간이 신에 기대는 나약함에 대해,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선지자(종교지도자)의 위선에 대해, 그리고 신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던져지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종교의 모습을 돌아볼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고통스러운 물음이다.

“당신은 어쩌서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요?” 이반이 들려주는 서사시에 나온, 세비아에 재림한 예수를 가둔 추기경 대심문관의 질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교재판을 행하는 대심문관이 오히려 자신이 섬기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다. 말없이 그의 말을 듣는 예수에게 대심문관은 자신의 실체를 실토했다. 그리스도라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일까. 대심문관의 어조는 걱정적이며, 씹어뱉는듯한 말들은 광기에 차 있다.

“그들의 양심을 영원히 지배하고 사로잡을 강력한 세 가지 힘이 지상에 존재하오. 기적과 신비와 교권이오.” 대심문관은 ‘허약하고 비열한’ 인간들은 이 세 가지로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당신은 세 가지를 모두 거부하고 스스로 그 모범이 되었다” 고 말한다.

그러나 곧 대심문관은 예수를 조롱한다. “하지만 만일 신비가 존재한다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신비이며, 설혹 양심에 거리킨다 할지라

도 사람들이 무조건 복종해야 할 것은 신비라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정당할 것이요.” 결국 대심문관이 진정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권세가 인간들의 뇌리에 영원히 뿌리내리길 바라는, 아주 세속적인 욕망인 것이다.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심문관은 “기적과 신비와 교권을 반석으로 삼”는다. 대(大)심문관의 큰 권위는 결국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마저 그가 대심문관의 명령에 의해 잡혀갈 때 아무소리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데, 이는 꾸준히 대심문관(혹은 대심문관들로 표현될 수 있는 타락한 종교지도자)이 인간들의 영혼을 장악한 결과다.

이때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장식한 대심문관을 섬긴다. 그러면 대심문관은 누구를 섬기는가?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요.” 그리스도로 포장된 대심문관은, 악마를 섬긴다고 실토했다.

기독교를 믿는 나는 복학해서 집을 떠나온 후 새로 다닐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다.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감한다. 김규향의 말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십자가를 내걸어놓은 상점일 뿐이다. 설교시간 내내 ‘김일성 죽일놈’ (이미 죽었는데) 요지의 전혀 새롭지 않는 시국선언을 하는 목사를 본 적도 있고, “예수를 믿어서 판검사가 됐다”는 달콤한 얘기를 늘어놓으며 자분의 논리를 견고히 하는 설교는 수도 없이 들었다.

예수를 간판삼은 곳에서 예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돈을 밝히며 현금을 모아 교회를 치장하는 데 애쓴다. 대심문관들이 가득하다.

진짜 예수의 가르침은 무엇이이었을까.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예수는 ‘빵으로 복종을 산다면 그게 무슨 자유인가라고 판단하여’ 악마의 유혹을 거절했고, 손쉽게 인간을 사로잡을 기적과 신비와 교권을 모두 거부했다.

말하자면 이 ‘자유’는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자유’와는 차원이 틀린 자유다. 대심문관의 말마따나, 예수가 전파하는 자유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를 고민하고, “선악을 분별”할 때 기도하는 자유로운 신앙, 자유로운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운 자유다. 깊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대통령부터 길거리의 성매매여성까지 모두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는, 그런 종류의 자유다.

여성차별이 아직도 대두되는 지금으로부터 2천년전, 예수는 여러 여성들과 동행했고 그 중 가장 천한 성매매여성이었던 막달라마리아와 인격적으로 교류했다. 예수의 자유는 시대를 지배하는 불평등과 억압에 맞서는 자유다. 그래서 항상 현재진행형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면 소름이 끼친다. 난 대심문관의 항변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인간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허약하고 비천하게 창조되어 있는 것이요!”, “인간에게는 (...) 자유라는 선물을 한시바삐 넘겨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런 고민은 없는 것이요.”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아오지 않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같은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을 따르는 길은 너무 힘든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기적을 원하고 확실한 교권을 원한다. 자진해서 억압을 바라며 자유를 반납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인의 자유의사결정이라는 그들의 큰 두통거리나 현재 당면한 무서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요.” 대심문관의 변명일지 몰라도, 아마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형 아론은 정말 이러한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까. 무서워라. 고통 때문에 주체적 자유를 자진해서 헌납하는 나의, 우리

들의 모습이.

“가시오, 다신 오지 마시오!”

서사시의 마지막, 대심문관은 그리스도를 내쫓는다. 인간들이 진실을 깨우치는 순간, 그들이 그동안 잘 보존해 온 성체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서사시에 나오는 15세기는 중세시대의 끝무렵. 교권이 확고했던 이 시기를 후대사람들은 ‘암흑시대’라 부른다.

이제 지금의 한국을 바라본다. 어디를 가나 정육점 간판색깔과 똑같은 빨간 십자가. 창궐하는 교회들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억압하는 사상을 공고히 지키는데에 앞장선다. 예수의 가르침은 2천년이 지난 지금도 전파되지 않고,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교회라는 이름의 상점에 나가 대심문관 앞에 자유를 팔며 행복하게 미소짓는다.

심문